

2022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전망

I. 국내외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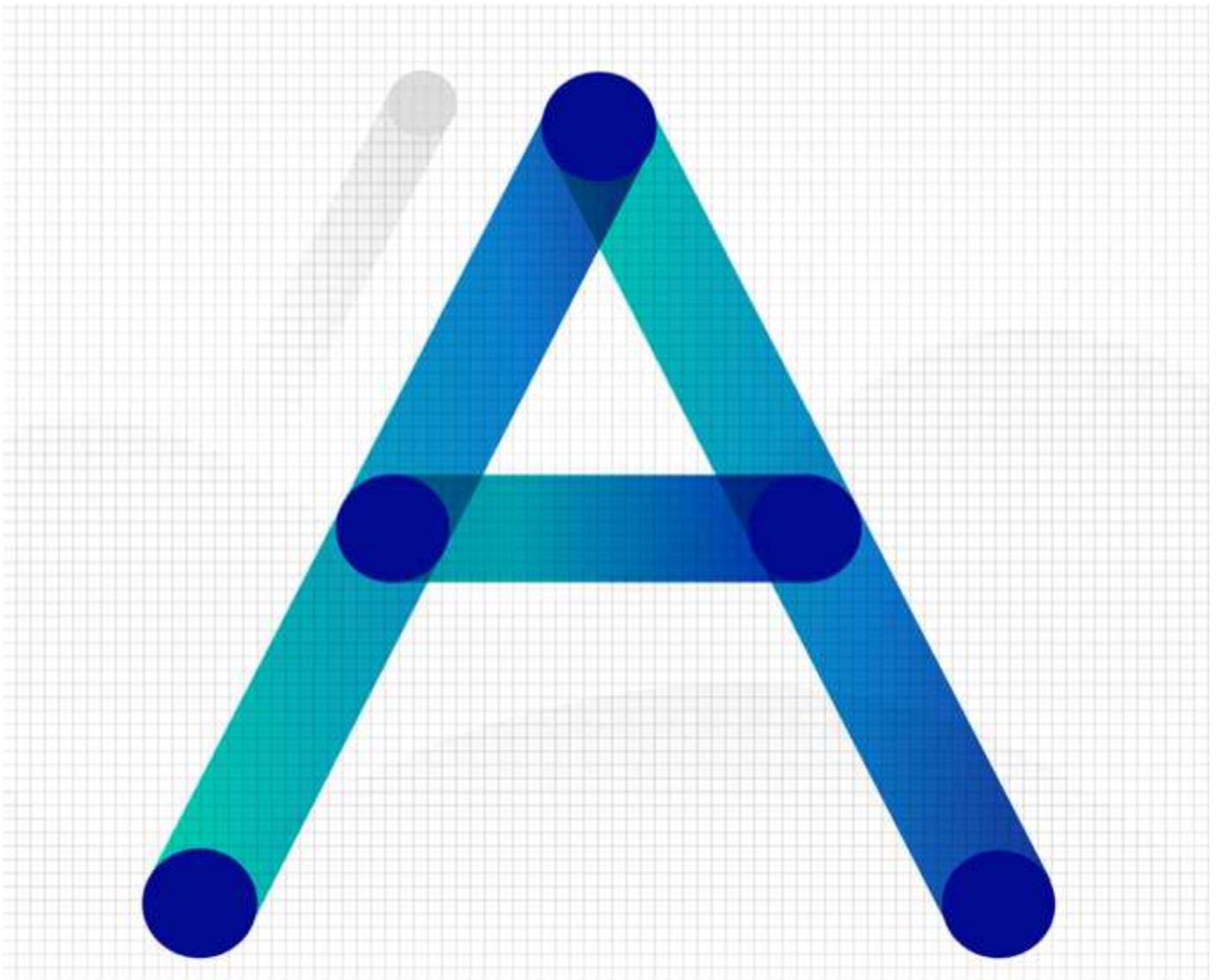
- 가. 세계경제전망
- 나. 국내경제전망

II. 주요 산업별 수출전망

- 가. 주요 수주 산업
- 나. 주력 수출산업
- 다. K-뉴딜 산업

작성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





작 성

선임연구원 양종서(6252-3586)
: 조선, 해운, 일반기계, 철강

선임연구원 강정화(6252-3612)
: 해외건설, 이차전지, 태양광

선임연구원 김윤지(6252-3607)
: 국내외 경제

선임연구원 성동원(6252-3611)
: 석유화학, 제약·바이오, 유가

선임연구원 이미혜(6252-3608)
: 반도체, 디스플레이, 콘텐츠

책임연구원 김호건(6252-3610)
: 자동차, 미래모빌리티

책임연구원 이현진(6252-3609)
: 이동통신장비



<요 약>

I. 국내외 경제전망

가. 세계경제전망

□ '22년 세계 경제는 백신접종 확대 및 주요국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소비·고용 등이 회복되며 4.5~4.9% 성장 전망

- 2021년에는 백신보급,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5%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델타변이 확산, 공급망 차질 등으로 불균등한 회복 지속
- 2022년에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차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불확실성이 있으나, 선진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고용 회복 등으로 기초적으로는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
- **(미국)** 2021년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미국은 2022년에는 미진했던 고용시장이 회복되며 성장세가 지속되나, 공급망 차질 영향으로 전년보다는 성장률 둔화
- **(유럽)** 제조업 중간재 조달 차질 등의 영향은 있겠으나, EU 회복기금으로 소비·투자가 개선되고 관광 등 서비스 산업 회복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 전망
- **(신흥국)** 원자재 수출국은 성장세가 개선되겠으나 중국은 긴축재정 등으로 경기하방 압력이 높고, 백신접종률이 낮은 일부 신흥국은 회복세 부진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 분	2021년 (IMF)	2022년		
		IMF	OECD	한국은행
전세계	5.9	4.9	4.5	4.3
선진국	5.2	4.5	4.7	-
미국	6.0	5.2	3.7	4.0
유로	5.0	4.3	4.3	4.3
일본	2.4	3.2	3.4	2.4
신흥국	6.4	5.1	-	-
아시아	7.2	6.3	-	-
중국	8.0	5.6	5.1	5.2
인도	9.5	8.5	8.1	-
한국	4.3	3.3	3.0	3.0

주: IMF(10월), OECD(12월, 선진국은 G20), 한국은행(11월)



나. 국내경제전망

□ '22년 국내경제는 백신접종 확대, 확장적 재정지출, 수출의 견조한 흐름 등으로 고용 및 민간소비가 회복돼 3%대 성장 전망

- 2021년에는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의 큰 폭 증가, 반도체 등 IT경기 호황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며 4% 수준 성장
 - (민간소비)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지속 등으로 대면서비스 소비가 둔화되며 민간소비 회복세는 다소 지연됐으나, 2022년에는 백신접종 확대,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소비활동이 강화되면서 민간소비는 3%대 중후반 성장 전망
 - (설비투자) 2021년에는 글로벌 경기회복 및 IT부문의 투자 개선세로 높은 설비 투자율을 나타냈으며 2022년에는 신성장 및 친환경 부문 투자가 늘어나겠으나 21년 빠른 성장세 따른 기저효과로 2%대 성장 전망
- (수출) 주요국 소비회복은 이어지겠으나 글로벌 성장률 및 교역신장률의 전년 대비 하락 영향으로 2022년 수출은 3% 내외 증가 전망
 - ('21년 동향) 경제활동 재개 및 기저효과, 견조한 IT 수요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류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호조를 보이며 전년대비 25.8% 증가한 6,445억 달러 기록
 - ('22년 전망) 백신접종 확대, 주요국 경기부양책 등으로 양호한 수출 흐름은 지속되겠으나, 기저효과 감소로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돼 약 3% 증가한 6,600억 이상 전망,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 및 중국 성장률 둔화 등이 가시화될 경우 성장폭은 축소 가능

*세계무역증가율(IMF) : 0.9%('19)→△8.2%('20)→9.7%('21^e)→6.7%('22^f)

대외거래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한국은행	KDI	확정	한국은행	KDI	해외경제연구소
수 출	5,125 (△5.5)	6,410 (25.1)	6,412 (25.1)	6,445 (25.8)	6,480 (1.1)	6,714 (4.7)	6,638 (3.0)
수 입	4,676 (△7.1)	6,080 (30.0)	5,625 (20.3)	- -	6,160 (1.3)	6,025 (7.1)	- -

주: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수출은 통관기준
자료: 한국은행(11월), KDI(11월) 전망 기준



Ⅱ. 주요 산업별 수출전망

가. 주요 수주산업

□ 조선·해양은 2021년 집중 발주 영향으로 다소 감소, 건설·플랜트는 중동 발주 정상화로 양호한 성장 전망

- **(해운)**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물류 혼란 안정화 및 실질 선복 수요 감소 등으로 운임은 전년 대비 하락하나, 교역량 증가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은 유지될 전망
- **(조선)** 온실가스 규제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요가 지속되나, '21년 중 컨테이너선의 집중 발주 영향으로 수주량은 전년 대비 감소 예상
- **(해양플랜트)** 고유가에 대응한 산유국의 점진적 증산, 미국 셰일오일 증산 가능성 등으로 고유가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해외건설)** 코로나 상황 안정, 유가 상승으로 지연되었던 중동 발주의 정상화 등으로 320억 달러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주요 수주산업 수주 전망

단위 : 억 달러, 포인트

구 분	'21년	'22년	'23~'25년 전망
해 운 (BDI ^{주)})	2,943 (176.1%)	2,100 (△28.7%)	1,700~2,100
조 선	405 (116.6%)	328 (△19.0%)	280~330
해 양 플 랜 트	34 (353.1%)	12 (△64.8%)	5~20
해 외 건 설	306 (△12.8%)	320 (4.6%)	250~350

자료 : 해외경제연구소 자체 전망

주: BDI(Baltic Dry Index)는 발틱해운거래소가 발표하는 종합운임지수로서, 전세계 교역량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며, 높을수록 해운업 경기가 호황임을 표시

주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나. 주력 수출산업

□ '22년 수출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 이상의 수출액은 유지될 전망

- **(반도체)** 반도체 수요는 수요처 다변화, 탑재량 증가 등으로 견조하나 메모리 반도체 가격하락, 2021년 업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예상
- **(자동차·자동차부품)** 21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으로 판매량 증가세는 둔화되나, 고가차량 수출 비중 확대, 친환경차 성장 등으로 5% 내외 증가 전망
- **(일반기계)**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으로 수출 호조세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경기부양책 속도 조절 등으로 수출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
- **(석유화학)** 미국, 중국 등 석유화학설비 신·증설에 따른 공급 확대 영향 등으로 수출은 소폭 감소할 전망

주력 수출산업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 분	'21년	'22년	'23~'25년 연평균증가
반도체	1,280 (29.0%)	1,318 (3.0%)	5%
자동차 및 부품	685 (22.2%)	714 (4.2%)	3%
일반기계	531 (10.8%)	563 (6.0%)	4%
석유화학	551 (54.8%)	530 (△3.8%)	2%

자료 : 해외경제연구소 자체 전망

주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다. K-뉴딜 산업

□ 탈탄소 산업재편 및 시장수요 증가, 정책지원 등으로 수출증가 기대

- **(미래차)**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도 주요국의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확대·연장으로 수출 증가 예상
- **(리튬이차전지)** 글로벌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요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수출 증가 예상
- **(태양광)** 글로벌 태양광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콘텐츠)** 게임·음악·방송 등 수요 호조 지속, 수출지역 다변화 등으로 콘텐츠 수출은 견조할 전망
- **(의료·바이오)** 바이오시밀러 해외판매 및 위탁생산(CMO) 수요 지속 등에 따른 수출 호조가 기대되나,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 심화로 큰 폭의 증가는 어려울 전망
- **(이동통신장비)** 베트남·멕시코의 5G 인프라 투자 확대, 화웨이 규제에 따른 틈새시장 공략 등 이동통신장비 수출 증가 기대

뉴딜산업 수출 전망¹⁾

단위 : 억 달러

구 분	'21년		'22년		'23~'25년 연평균 증가율
리튬이차전지	53	(19.0%)	75	(28.2%)	20%
미래차(전기차)	55	(41.7%)	79	(42.8%)	30%
태양광	12.5	(△16.7%)	13	(4%)	5%
이동통신장비	11	(12.1%)	13	(16.3%)	13%
의료·바이오 ²⁾	85	(20.5%)	90	(6.0%)	4%
콘텐츠	115	(6.2%)	122	(6.4%)	6%

자료 : 해외경제연구소 자체 전망,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주 : 1) 뉴딜 7대 중점분야 중 수소에너지는 '25년 이후 초기시장 형성 예정으로 현재 시점에서 수출액 및 전망 집계가 어려워 분석대상에서 제외

2) 의약품 수출액 기준



I. 국내외 경제전망

가. 세계경제전망

(1) 경제 성장

□ 2022년 세계경제는 백신접종 확대 및 주요국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소비·고용 등이 회복되며 4.5~4.9% 성장 전망

- 2021년 글로벌 GDP는 각국의 정책노력과 백신보급,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5%대 후반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델타변이 확산, 공급망 차질 등으로 불균등한 회복이 지속되며 하반기 성장세는 다소 둔화
-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주요국 선진국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었고, 접종률이 낮은 신흥 국가들은 봉쇄조치 재도입, 물류 차질 등으로 경기회복이 제약됨
- 2022년에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차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불확실성이 있으나, 선진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고용 회복 등으로 기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
- **(미국)** 2021년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미국은 2022년에는 미진했던 고용시장이 회복되며 성장세가 지속되나, 공급망 차질 영향으로 전년보다는 성장률 둔화
- **(유럽)** 제조업 중간재 조달 차질 등의 영향은 있겠지만, EU 회복기금으로 소비·투자가 개선되고 관광 등 서비스 산업 회복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 분	2021년 (IMF)	2022년		
		IMF	OECD	한국은행
전세계	5.9	4.9	4.5	4.3
선진국	5.2	4.5	4.7	-
미국	6.0	5.2	3.7	4.0
유로	5.0	4.3	4.3	4.3
일본	2.4	3.2	3.4	2.4
신흥국	6.4	5.1	-	-
아시아	7.2	6.3	-	-
중국	8.0	5.6	5.1	5.2
인도	9.5	8.5	8.1	-
한국	4.3	3.3	3.0	3.0

주: IMF(10월), OECD(12월, 선진국은 G20), 한국은행(11월)



- 신흥국 중 원자재 수출국은 성장세가 개선되겠지만 중국은 긴축재정 등으로 경기하방 압력이 높고, 백신접종률이 낮은 일부 신흥국은 회복세 부진 전망
- **(중국)** 2021년은 기저효과 및 수출 호조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소비·생산 등 주요경제지표 둔화, 2022년에도 석탄가격 급등 및 엄격한 탄소배출 목표 설정 등으로 경기하방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5%대로 성장률 하락 전망
- **위험 요인 :**
 - ① 백신접종 지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경제 및 고용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
 - ② 빠른 백신보급, 수요 급증의 영향으로 단기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의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조기 정상화되면서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
 - ③ 정책 여력이 부족한 일부 신흥국의 경우 과도한 부채 및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성장이 제약될 가능성



(2) 세계교역

□ 2022년 세계 교역량(상품·서비스) 증가율 6%대 후반 전망

- 2021년 세계 교역량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축에서 벗어나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8~9%대 증가
- 글로벌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지역 물류에 차질이 발생하며 운송비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수출 물가도 전반적으로 상승
- 2022년에는 부진했던 서비스 교역 부문은 회복되겠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됨에 따라 전년보다는 성장세가 소폭 둔화돼 6%대 후반 증가 전망
- 백신접종률에 따른 국가별 회복 속도 차이로 선진국 수입 증가율은 2021년 9.0%에서 2022년 7.3%로, 개발도상국 수입 증가율은 2021년 12.1%에서 2022년 7.1%로 하락 예상

세계 교역신장률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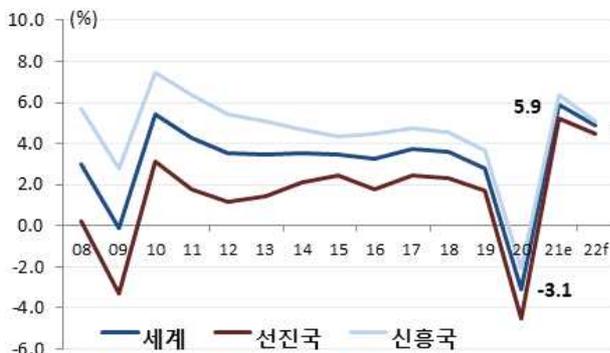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IMF	WTO	IMF	WTO	IMF	WTO
교역신장률	△8.2	△5.3	9.7	8.0	6.7	4.0
수입	선진국	△9.0	9.0	-	7.3	-
	개발도상국	△8.0	12.1	-	7.1	-
수출	선진국	△9.4	8.0	-	6.6	-
	개발도상국	△5.2	11.6	-	5.8	-

주: IMF는 상품·서비스 물량 기준, WTO는 상품 물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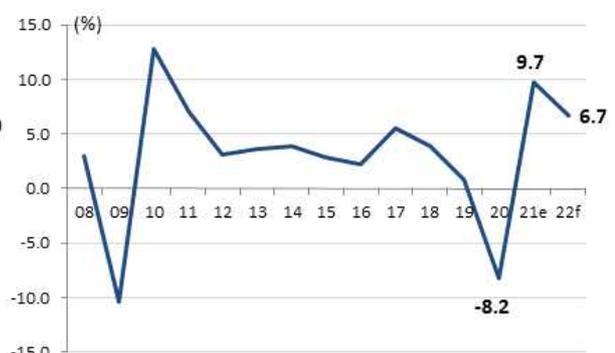
자료: IMF(10월), WTO(3월) 전망 기준

세계 경제성장률



자료: IMF(10월)

세계 교역신장률





(3) 국제금융시장

□ 국제 금리

- 미연준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정책금리도 2022년 3회 인상 시사
- 2021년 정책금리 동결 및 자산매입을 유지했던 미국 연준은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2022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기고 기준금리도 2022년 중 0.75%~1.00% 수준으로 인상할 전망
- 유로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경제지표 회복, 물가 상승 등으로 테이퍼링 시기를 조율하겠으나, 완화적 통화정책이 당분간 지속됨에 따라 2022년 내 금리 인상은 어려울 전망
- 장기금리는 인플레이션 확대, 코로나19 상황 개선, 주요 선진국 경기확장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할 전망
- 미 국채 수익률(10년물)은 글로벌 공급병목현상이 당초 전망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플레이션이 확대·지속되어 2022년 말 2%대로 상승할 전망

주요 국제금리 전망

단위: %

구 분	2021년	2022년 1/4	2022년 2/4	2022년 3/4	2022년 4/4	비 고
미 국	1.57	1.71	1.85	1.95	2.04	T/B(10년물)
일 본	0.07	0.09	0.10	0.11	0.13	JGB(10년물)
독 일	-0.20	-0.10	-0.02	0.06	0.09	Bund(10년물)

자료: Bloomberg, 국제투자은행전망 평균('21.12.28일자 기준, 2020년은 4분기말 전망치)



□ 환율

- 2022년 미 달러화는 인플레이션 압력 영향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단행됨에 따라 강세 기조가 이어질 전망
-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고 금리 인상도 단행됨에 따라 미달러 강세도 강화되겠지만, 하반기에는 글로벌 공급병목현상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달러 강세 정도도 완만해질 전망
- 유로화는 EU회복기금 집행의 파급효과가 높아 경기 반등이 강화될 경우 강세 압력이 높아지겠지만 당분간 약세 지속
- 일본 엔화는 경기 반등 폭이 크지 않고 일본은행도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약세 유지
- 중국 위안화는 경기둔화 가능성, 중국 정부의 환율 안정 대응 강화, 미국 달러화 강세 영향 등으로 약세 요인 우세 예상

주요 국제환율 전망

구 분	2021년 평균	2022년 1/4	2022년 2/4	2022년 3/4	2022년 4/4
엔/달러환율	110	114	115	114	114
달러/유로환율	1.18	1.12	1.13	1.14	1.15

자료: Bloomberg, 국제투자은행전망 평균(21.12.28일자 기준, 2021년 평균은 12.28일까지의 평균값)



(4) 유가

□ 2021년 평균유가(두바이유 기준)는 타이트한 수급 여건으로 전년대비 배럴당 27.21달러(약 64%) 급등한 69.42달러

- 2021년 유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원유수요 회복 기대감, 각국의 경제·산업활동 정상화 등으로 연초부터 강한 상승세
- 2021년 세계경제 활동의 정상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가 등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 기대감 등으로 유가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 회복하여 6월 이후 배럴당 70달러대에 진입
- OPEC+의 감산 지속과 함께 미국 원유생산량 회복 부진 등 제한적인 공급으로 수급 타이트가 심화되며 유가 상승폭 확대
- 8월말 초강력 허리케인 아이다(Ida)의 미국 멕시코만 강타로 원유생산 설비의 약 70%가 폐쇄되는 등 9월말까지 생산차질이 이어져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중후반대까지 상승
- 4분기에도 유가 강세가 이어지며 2021년 평균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전년동기 대비 약 64% 급등한 배럴당 69.42달러 기록
- 10월 들어 유가는 약 3년 만에 배럴당 80달러대를 돌파하였고, 10월말 연중 최고치 기록(10.25일, \$84.37/bbl)
- 이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에 의한 달러화 강세 등으로 11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12월 중순 배럴당 70달러선(12.20일, \$70.11/bbl)까지 하락했으나, 오미크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시되고, 미국 원유재고의 5주 연속 감소함에 따라 12월말 배럴당 70달러 후반대로 상승(12.31일, \$77.12/bbl)

□ 2022년 유가는 공급확대로 인해 점차 우하향하여 평균유가는 전년과 유사한 배럴당 70달러 내외 수준 전망

- 2022년에도 원유수요 회복세 지속이 예상되나,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전년대비 수요 증가율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며, OPEC+의 감산완화 지속, 미국 등 비OPEC의 생산량 증가, 이란산 원유의 잠재적인 유입 가능성 등 공급확대 요인으로 2022년 석유시장은 공급초과로 전환될 전망



- 수급측면에서 볼 때 2022년 유가는 점진적인 우하향이 예상되며, 2022년 평균유가는 2021년과 유사한 배럴당 70달러 내외 수준 전망
- OPEC+는 2021년 7월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2022년 4월 종료되는 감산 기한을 12월까지 연장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되 기본적으로 2021년 8월부터 매월 40만 b/d씩 감산완화(증산) 계획에 합의
- 멕시코만 원유 생산활동 정상화와 미국 수요회복세, 2021년 시추리스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미국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외에 브라질, 노르웨이 등의 비OPEC 국가의 생산량도 증가할 전망
- 한편 12월초 이란과 서방 국가간의 핵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이란산 원유의 국제시장 유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단기적으로 이란산 원유의 국제시장 유입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2022년 잠재적인 공급확대 요인으로서 큰 폭의 유가상승을 제한할 가능성
- EIA 등 대부분의 해외 유가전망 기관들은 2022년 유가(브렌트유 기준)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다만 2022년 평균유가 전망치는 2021년 대비 배럴당 5달러 낮은 65달러부터 18달러 이상 상승한 89달러까지의 범위로 기관별 편차가 매우 큼
- 이는 코로나19 확산세, OPEC+의 공급정책 등을 포함하여 현재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반영

해외 주요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브렌트유 기준)

(단위: \$/배럴)

전망기관 (발표시점)	2021년	2022년				연평균
	연평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EIA('21.12월)	70.72	73.00	70.65	69.67	66.98	70.60
IHS('21.11월)		78.50	74.70	79.60	76.10	77.23
EIU('21.10월)		70	72	71	71	71
JP Morgan('21.11월)		84	88	89	91	88
Morgan Stanley('21.11월)		95	90	85	85	88.8
Barclays('21.11월)		82	80	80	78	80
Deutsche Bank('21.11월)		72	60	64	64	65

* ()안은 전망 시점

자료: EIA, EIU;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인용



나. 국내경제전망

(1) 경제 성장

□ 2022년 국내경제는 백신접종 확대, 확장적 재정지출, 수출의 견조한 흐름 등으로 고용 및 민간소비가 회복돼 3%대 성장 전망

- 2021년에는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의 큰 폭 증가, 반도체 등 IT경기 호황으로 인한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며 4% 내외 성장
- (민간소비)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지속 등으로 대면서비스 소비가 둔화되며 민간소비 회복세는 다소 지연됐으나, 2022년에는 백신접종 확대, 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소비활동이 강화되면서 민간소비는 3%대 중후반 성장 전망
- (설비투자) 2021년에는 글로벌 경기회복 및 IT부문의 투자 개선세 영향으로 높은 설비투자율을 나타냈으나, 2022년에는 신성장 및 친환경 부문 투자 증가에도 전년도 높은 증가세의 기저효과로 2%대 성장 전망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한은	IMF	OECD
국 내 총 생 산(GDP)	△0.9	4.0	4.0	4.0	3.0	3.3	3.0
민 간 소 비 지 출	△5.0	2.4	4.7	3.5	3.6	-	-
설 비 투 자	7.1	12.6	3.9	8.2	2.4	-	-
실 업 률	4.0	4.5	2.9	3.7	3.6	-	-
소 비 자 물 가	0.5	1.8	2.8	2.3	2.0	-	2.1

주: 2020~2021년 수치는 한국은행(11월), 2022년은 IMF(10월), OECD(12월)

□ 고용과 물가

- 2021년은 기저효과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 전반에서 고용 증가세를 지속, 2022년에는 백신접종 확대에 힘입어 서비스업도 점차 회복되면서 취업자수는 25만명 증가, 실업률은 3%대 후반 전망
- 유가 및 원자재, 농축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2021년 소비자물가는 2.3% 상승, 2022년에는 공급측 물가상승 영향력(식료품, 에너지 등)은 줄어들겠지만 경기회복세 및 글로벌 공급병목 영향으로 물가 상승압력은 높아져 2.0% 내외 상승 전망



(2) 수출

□ 2022년 수출은 전년대비 3% 내외 증가 전망

- 주요국 소비 회복은 이어지겠으나 글로벌 성장률 및 교역신장률의 전년대비 하락 영향으로 2022년 수출은 3% 내외 증가 전망
- 2021년 수출은 경제활동 재개 및 기저효과, 견조한 IT 수요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류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호조를 보여 전년대비 25.8% 증가한 연간 6,445억 달러 기록
- 2022년에는 백신접종 확대, 주요국 경기부양책 등으로 양호한 수출 흐름은 지속되겠으나 기저효과 감소로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돼 3% 내외 증가한 6,600억 달러 이상 전망,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 및 중국 성장률 둔화가 가시화될 경우 성장폭은 축소 가능

대외거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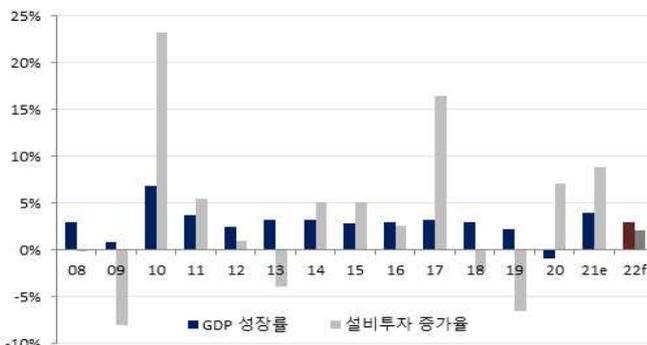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한국은행	KDI	확정	한국은행	KDI	해외경제연구소
경상수지	753	920	912	-	810	651	-
수 출	5,125 (△5.5)	6,410 (25.1)	6,412 (25.1)	6,445 (25.8)	6,480 (1.1)	6,714 (4.7)	6,638 (3.0)
수 입	4,676 (△7.1)	6,080 (30.0)	5,625 (20.3)	-	6,160 (1.3)	6,025 (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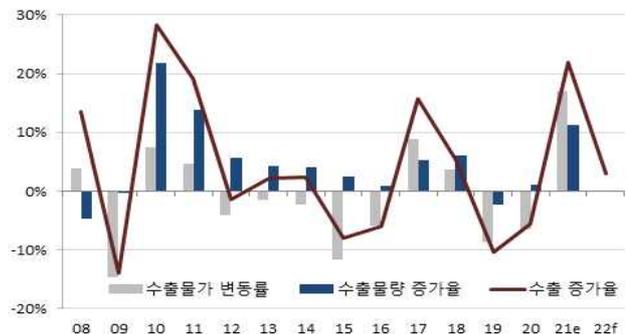
주: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수출은 통관기준

자료: 한국은행(11월), KDI(11월) 전망 기준

경제성장률 및 설비투자 증가율



수출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3) 국내 금융시장

□ 금리

- 2022년 주요국의 테이퍼링 실시 및 기준금리 인상 일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1%대 중후반까지 인상할 전망
-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전개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글로벌 물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위험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고 발표
- 이에 따라 2022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2차에 걸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 우세

2022년 금리 전망

단위: %

구 분	2021년	2022년 1/4	2022년 2/4	2022년 3/4	2022년 4/4
국고채권(3년물)	1.81	1.80	1.78	1.85	1.89

자료: Bloomberg, 국제투자은행전망 평균('21.12.28자 기준, 2021년은 4분기말 전망치)

□ 환율

- 2022년 중 원/달러 환율은 미국 통화정책 변화와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겠으나, 하반기 글로벌 공급병목현상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환율도 안정되는 '상고하저' 양상 전망
- 2021년에는 미 연준의 양적완화 조기축소 가능성 부각,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비중 축소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꾸준한 상승세 유지
- 2022년에도 미국 금리인상 및 달러화 선호 등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 중 1200원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하반기에는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안정화될 전망

2022년 환율 전망

단위: 원/달러

구 분	2021년 평균	2022년 1/4	2022년 2/4	2022년 3/4	2022년 4/4
원/달러	1,144	1,181	1,172	1,168	1,162

자료: Bloomberg, 국제투자은행전망 평균('21.12.28자 기준, 2021년 평균은 12.28일까지의 평균값)



II. 주요산업별 수출전망

가. 주요 수주산업

(1) 해외건설

□ 2021년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2.8% 감소한 306억 달러

- 전년 대비 수주 감소는 주력시장인 중동 및 아시아 수주가 전년 대비 각각 15.8%, 20.0% 감소했기 때문
- 2021년 해외건설 수주의 특이점은 그동안 수주가 미미했던 북미 및 유럽 등 선진시장 수주가 전년 대비 각각 620%, 188% 증가임

□ 2022년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320억 달러 전망

- 코로나19 상황 개선 및 유가 상승으로 중동지역 발주가 재개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아시아 인프라 건설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
- 주력시장인 중동 및 아시아지역 수주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석유화학 및 정유 등 플랜트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 발전 수요도 수주 확대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전세계 석탄 및 가스 발전 설치량 : '20(95GW) → '21(92GW) → '22(105GW)

※ 전세계 태양광 및 풍력 설치량 : '20(240GW) → '21(280GW) → '22(300GW)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수주액	290 (2.8)	321 (10.7)	223 (△30.5)	351 (57.4)	306 (△12.8)	320 (4.6)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해외건설 수주액은 인프라(토목, 발전, 전기시설 등), 건축, 플랜트, O&M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

자료: 해외건설협회, 2021년 및 2022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2) 인프라

□ 2021년 인프라 수주는 전년 대비 13.7% 감소한 129억 달러

- 도로를 제외한 모든 인프라 분야의 수주가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특히 친환경 발전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발전분야 수주액은 전년 대비 24.8% 감소

□ 2022년 인프라 수주는 전년 수준인 13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코로나19 상황이 2022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주 및 기업들의 영업 환경은 전년 대비 개선되나 수주액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
- 향후 인프라 수주 확대의 여부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및 전기자동차 등 그린 인프라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장환경에 우리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결정될 전망
- 그린 인프라 시대에 수주 확대를 위해선 과거 시공 위주의 사업형태에서 PPP 사업 등 개발 및 운영사업 중심의 수주 전략 전환이 필요
- 2021년 상반기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액은 6.3억 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4% 수준에 그쳐 여전히 부진한 상황 지속

인프라 수주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수주액	127 (3.5)	102 (△19.7)	68.9 (△32.5)	149.5 (117.0)	129.0 (△13.7)	130 (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인프라 수주액은 도로·교통·항만·공항 등 토목분야와 발전, 담수, 전기시설로 구성

자료: 해외건설협회, 2021년 및 2022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3) 조선(부분품 포함)

□ 2021년 신조선 수주량은 크게 증가

- 2021년 신조선 수주량은 전년 대비 100.5% 증가한 1,744만CGT(해양 포함)
- 컨테이너선 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컨테이너선의 신조선 발주가 급증하였고, 여기에 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한 상선들의 교체수요 증가로 선박 수주 급증
- 해양플랜트 수주도 국제유가 또한 급등하며 FPSO도 3기 수주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실적 유지
- 2021년 선박 수주량은 전년 대비 103.2% 증가한 1,726만CGT
- 2021년 해양플랜트 수주량은 3기의 FPSO 18만CGT로 전년도 수주한 2기의 LNG FSU보다 CGT가 작게 산정되어 전년 대비 12.2% 감소
- 2021년 신조선 수주액은 전년 대비 125.7% 증가한 439.1억 달러
- 선박 수주액은 전년 대비 116.6% 증가한 405.0억달러
- 해양플랜트 수주액은 전년 대비 353.1% 증가한 34.1억 달러
- 2021년 수출액(해양플랜트 포함)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230.0억 달러
- 2020년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며 선박건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11월에 25억 달러 상당의 LNG-FPSO가 인도되며 전년대비 양호한 수출실적 기록

□ 2022년 총 선박수주량은 감소하겠으나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수출액은 감소 전망

- 2021년에 과도하게 집중 발주된 컨테이너선의 발주량 감소와 친환경선박 전환에 대한 일부 선주들의 관망세 등으로 2022년 전반적인 신조선 발주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조선업 수주량은 소폭 감소하겠으나 노후선 조기교체 수요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 유지, 전년 대비 25.4% 감소한 13백만CGT 수주 가능 전망
- 선박 수주량은 전년 대비 25.3% 감소한 12.9백만CGT 전망
- 해양플랜트 수주량은 약 2기의 FPSO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44.2% 감소한 10만CGT 내외의 수주 전망



- 2022년 총 신조선 수주액은 전년 대비 22.6% 감소한 340억 달러 수준 전망
 - 선박 수주액은 전년 대비 19.0% 감소한 328억 달러 수준 전망
 - 해양플랜트 수주액은 전년 대비 64.8% 감소한 12억 달러 내외 전망
- 2022년 선박(해양플랜트 포함) 수출은 2020년 수주 부진에 의한 일감 부족으로 전년 대비 약 21.3% 감소한 181억달러 수준 전망

선박 수주 및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CGT,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수주량	선박	7.7 (245.6)	13.5 (75.2)	9.9 (△26.7)	8.5 (△14.4)	17.3 (103.2)	12.9 (△25.3)
	해양	0.2 (전년도 0)	0.0 (△100)	0.1 (전년도 0)	0.2 (252.3)	0.2 (△12.2)	0.1 (△44.2)
수주액	선박	145.4 (229.0)	270.1 (85.8)	218.5 (△19.1)	187.0 (△14.4)	405.0 (116.6)	328 (△19.0)
	해양	28.0 (전년도 0)	0.0 (△100)	9.7 (전년도 0)	7.5 (△22.6)	34.1 (353.1)	12 (△64.8)
수출액		421.8 (23.1)	212.8 (△49.6)	201.6 (△5.2)	197.5 (△2.0)	230.0 (16.4)	181 (△21.3)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수출액은 해양플랜트 포함

자료: Clarkson,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4) 해운

□ 2021년 해운 시황은 컨테이너선 시장의 초호황, 탱커시장의 부진 등 선종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전반적인 해상물동량의 흐름이 혼란을 겪으며 그 영향이 각 선종 시장별로 다르게 나타남
- 컨테이너선은 운임은 2021년 내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였고, 벌크선 시황도 11년만에 운임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탱커 시황은 용선료가 손익분기점 미만을 기록함
- 탱커는 2020년 상반기 저유가 물량의 집중 수입으로 주요 수입국의 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산유국들의 생산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소비 역시 항공유 등의 부진으로 해운시황이 어려움을 겪음
- 310K급 VLCC 1년 정기용선료는 연초 1일당 25,125달러에서 연말 18,500달러까지 하락해 2021년 평균 20,932달러로 전년 대비 47.4% 낮은 수준을 기록
- 컨테이너선은 선진국 수요 회복과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물류차질에 따른 선복부족 효과로 주요 원양노선에서 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연속으로 경신함
- 상하이-미 동안 노선의 예를 살펴보면 연초 운임이 FEU당 4,729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이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4분기에 소폭 하락해 연말 11,579달러 기록
- 중국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CCFI의 2021년도 평균치는 2,616으로, 전년 대비 165.7% 상승
- 벌크선은 주요국 경기부양 수요에 컨테이너선 부족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수요까지 겹치며 운임지수가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벌크선 운임지수 BDI의 2021년도 평균치는 전년 대비 176.1% 높은 2,943으로 2010년 이후 11년만의 최고치 기록



□ 2022년 해운 시황은 전반적으로 운임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양호한 수준은 유지할 전망이며 탱커시황은 부진 지속 예상

- 2022년 해운 수요는 코로나백신 효과에 의한 컨테이너 물류 혼란의 안정화 등으로 다소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운임의 하락폭은 크지 않을 전망
- 탱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석유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신규 선박 공급과 2020년 수입 급증기에 저장용으로 동원된 탱커들의 해운시장으로 복귀 등 공급측 증가 요인으로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 310K급 유조선 용선료는 전년 대비 2.1%로 소폭 하락한 1일당 20,500달러 내외를 기록하나 '20년대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컨테이너선 CCFI는 약 16% 하락하나 연평균 2,200 수준으로 '20년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벌크선은 BDI는 전년 대비 약 29% 하락한 연평균 2,100 내외 전망

해운 평균 운임지수 현황 및 전망

단위: 용선료는 \$/day, 지수,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탱커용선료	27,084 (△26.0)	22,899 (△15.5)	36,358 (58.8)	39,788 (9.4)	20,932 (△47.4)	20,500 (△2.1)
CCFI	820 (15.2)	818 (△0.2)	824 (0.7)	984 (19.5)	2,616 (165.7)	2,200 (△15.9)
BDI	1,145 (70.1)	1,353 (18.1)	1,353 (0.0)	1,066 (△21.2)	2,943 (176.1)	2,100 (△28.7)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탱커 용선료는 310K급 VLCC 기준

자료: Baltic 해운거래소, Clarkson, 상해항운교역소, 2022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나. 주력 수출산업

(1) 반도체

□ 2021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1,280억 달러 기록

- 반도체 수출은 서버·PC용 수요 견조, 모바일용 수요 회복, 파운드리 업황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
-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31.3% 증가한 39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했으며, 반도체 수출중 시스템반도체 수출 비중은 31.1%를 기록
 - * 시스템반도체 수출 추이: ('17) 254억 달러 → ('19) 257억 달러 → ('21) 398억 달러
-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수요, 가격 상승 등으로 호조세 지속
- 2021년 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한 2018년 1,267억 달러를 넘어섬
- 반도체 수출은 5월부터 8개월 연속 월 수출 100억 달러를 기록

□ 2022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1,318억 달러로 전망

- 메모리반도체 시장규모는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요, 포스트 코로나 19에 대비한 기업들의 투자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성장 전망
- 2017~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견인한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는 전년 대비 17% 증가 전망(델로로)
- 반도체 Downcycle 대비한 메모리반도체회사의 낮은 재고수준 유지, 수요기업의 재고 정책 변화 등으로 과거 대비 메모리반도체 Downcycle이 짧게 끝날 것으로 예상
 - * IT기기 생산을 제약한 비메모리반도체 공급부족은 2021년 대비 완화되고, 수요기업은 코로나19 등의 불확실성으로 과거대비 높은 반도체 재고수준 유지 예상
- 비메모리반도체는 5G·AI·전기차 등에 따른 수요 증가, 파운드리의 높은 가동률 및 단가 상승 등으로 수출은 호조세 지속 전망

반도체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수출액	979 (57.4)	1,267 (29.4)	939 (△25.9)	992 (5.6)	1,280 (29.0)	1,318 (3.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2) 일반기계

□ 2021년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530.8억 달러

- 코로나19에 따른 침체로부터 주요국들의 산업생산 회복과 경기부양책 등으로 일반기계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냄
- 주요 기종별로 건설광산기계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38.1% 증가하였고 광학기기(20.5%), 원동기 및 펌프(14.2%), 공작기계(20.0%) 등 기초 및 산업기계 주요 기종이 대부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11월 누적 집계치 기준)
- 국가별로 대미 산업기계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32.2%, 기초산업기계 수출이 15.8% 증가하였고, 대중 수출 역시 산업기계 10.2%, 기초산업기계 25.0% 증가하여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11월 누적 집계치 기준)

□ 2022년도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약 563억 달러 전망

- 2022년에는 일반기계 수출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노력 지속에 따른 세계 경제성장과 투자에 힘입어 순조로운 수출 증가 예상
- 다만, 중국의 저성장과 경기부양 속도 조절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

일반기계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 망
수출액	486.1 (10.1)	535.6 (10.2)	525.6 (△1.9)	478.9 (△8.9)	530.8 (10.8)	562.6 (6.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일반기계는 MTI 71(기초산업기계), 72(산업기계), 75(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79(기타기계류)의 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3) 석유화학

□ 2021년 석유화학 수출은 전년 대비 약 55% 급증한 551억 달러

- 2021년 유가*가 전년 대비 60% 이상 급등하며 석유화학제품 가격** 동반 상승

* 국제유가(두바이유, \$/B) : ('20) 42.29 → ('21) 69.38(+64.1%)

** 석유화학 수출단가(\$/톤) : ('20.1.1.~12.25.) 1,151 → ('21.1.1.~12.25.)1,431(+49.4%)

- 언택트 시대의 위생용품·포장재 수요 증가 지속과 함께, 건설·자동차 등 전방산업 경기 회복에 따른 합성수지·합성고무 수요 호조세 등으로 석유화학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 급증, 사상 최고치인 551억 달러 달성

□ 2022년 석유화학 수출은 2021년 대비 약 4% 감소한 530억 달러 전망

- 2022년 평균유가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석유화학 설비 신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국내 석유화학 수출액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석유화학제품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수출액	447 (23.6)	500 (11.8)	426 (△14.8)	356 (△16.4)	551 (54.8)	530 (△3.8)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2021년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61억 달러이며 자동차부품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224억 달러로 추정

- 주요국의 백신 접종과 경기 부양책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한 가운데 수출단가가 높은 SUV·고급차·전기차 판매호조로 수출액 증가
- 수출단가가 높은 자동차 수출비중 증가로 자동차 수출액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섬

* 다목적차량 수출액(억달러, 비중): ('20)232.7(76.1%) -> ('21.01~11) 290.9(77.1%)
친환경차 수출액(억달러, 비중): ('20)71.3(19.1%) -> ('21.01~11) 103.5(24.5%)

□ 2022년 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각각 전년 대비 5.8% 증가한 488억 달러, 1.1% 증가한 226억 달러 예상

- 기저효과 종료로 판매량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나 고가 차량 및 친환경자동차 판매비중 확대가 자동차 수출액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
-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21년 대비 다소 완화될 전망이나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으로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
-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증가, 자동차 전동화로 자동차 부품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

자동차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 망
자동차 수출액	416.9 (3.8)	408.9 (△1.9)	430.4 (5.3)	374.0 (△13.1)	461 (23.4)	488 (5.8)
자동차부품 수출액	231.3 (△9.5)	231.2 (△0.1)	225.4 (△2.5)	186.4 (△17.3)	224 (19.9)	226 (1.1)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5) 철강

□ 2021년 철강 수출액은 전년 대비 37.0% 증가한 363.8억 달러

- 2021년 철강 수출은 중국정부가 환경개선을 위한 감산정책으로 수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확대함에 따라 매우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 철광석 가격은 '21년 6월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 철강재 가격도 다소 하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의 감산정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 2022년 철강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385억 달러 전망

- 중국의 감산정책은 비교적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2년에도 수출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의 속도조절과 국내 내수용 철강재 공급 부족에 따른 우려 등으로 수출증가율은 둔화될 전망

철강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수출액	342.1 (20)	339.7 (△0.7)	310.4 (△8.6)	265.6 (△14.5)	363.8 (37.0)	385 (5.8)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6) 석유제품

□ 2021년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약 58% 급증한 382억 달러

- 2021년 국제유가*가 하반기 들어 배럴당 70달러대로 급등하며 수출단가** 동반 상승

* 국제유가(두바이유, \$/B) : ('20) 42.29 → ('21) 69.38(+64.1%)

** 석유제품 수출단가(\$/톤) : ('20.1.1.~12.25.) 390 → ('21.1.1.~12.25.) 642(+64.7%)

- 경제·산업 활동 회복, 코로나19 백신접종 증가에 따라 석유제품 수요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함에 따라 석유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8% 급증한 382억 달러로 추정

□ 2022년 석유제품 수출은 2021년 대비 약 2% 증가한 390억 달러 전망

- 2022년 유가가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백신접종 증가에 따른 항공용 석유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액이 전년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중국의 정제설비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석유제품의 글로벌 공급과잉 기조, 에너지 전환 움직임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석유제품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수출액	350 (32.4)	464 (32.3)	407 (△12.2)	242 (△40.6)	382 (57.9)	390 (2.1)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7) 디스플레이

□ 2021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8.9% 증가한 214억 달러

- 디스플레이 수출은 2018~2020년에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2021년은 스마트폰의 OLED 탑재율 상승, 프리미엄 TV 수요 호조 등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 기록
- 디스플레이 수출을 견인한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한 145억 달러, 디스플레이 수출중 OLED 수출 비중은 67.9%를 기록
- LCD 수출은 한국기업의 LCD 구조조정, 중국기업의 성장 등으로 정체
- 디스플레이의 대중국, 대아세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2.5%, 26.4% 증가 (12.1.1 ~ 12.25 기준)

□ 2022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220억 달러 전망

- TV·PC 수요 둔화 등으로 패널 출하량은 둔화되나 고화질·대형 패널 선호, LCD에서 OLED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수출액은 소폭 상승 전망
- 2022년 패널 출하량 증가율은 2020~2021년에 2년 연속 TV·PC 수요가 증가한 영향 등으로 둔화 예상
- OLED 패널의 주 수요처는 스마트폰·TV에서 태블릿, 노트북 등으로 다변화 예상

디스플레이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수출액	274 (9.0)	247 (△9.9)	205 (△17.0)	180 (△12.2)	214 (18.9)	220 (3.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다. K-뉴딜 산업

(1) 리튬이차전지

□ 2021년 리튬이차전지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9% 증가한 58.5억 달러로 추정

- 2021년 11월까지 리튬이차전지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0% 증가한 52.5억 달러를 기록
- 세계 각국의 친환경차 의무생산제도 도입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 및 전기자동차 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
- 전기자동차 생산비용의 40%를 차지하는 리튬이차전지 수출도 글로벌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와 함께 큰 폭으로 증가 중

□ 2022년 리튬이차전지 수출액은 전년 대비 28.2% 증가한 75억 달러 전망

- 2022년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은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리튬이차전지 수출도 글로벌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와 함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하지만 국내 주요 리튬이차전지 생산기업들은 고객 확보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현지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어, 수출 증가율은 글로벌 수요 증가 대비 낮아질 전망

리튬이차전지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수출액	35.2 (51)	43.9 (24.7)	46.8 (6.7)	48.8 (4.3)	58.5 (19.9)	75 (28.2)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리튬이온배터리는 HS코드 850760 기준

자료: 무역협회, 2021년 및 2022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2) 태양광

□ 2021년 태양광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7% 감소한 12.5억 달러로 추정

- 글로벌 태양광의 양호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태양전지를 제외한 폴리실리콘 및 모듈 수출이 부진한 상황
-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로 미국 시장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은 부진 지속

□ 2022년 태양광 수출액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13억 달러 전망

- 2022년 글로벌 태양광시장은 200GW를 넘어서는 호황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 증가에 따른 제품 가격도 안정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유럽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될 전망
- 하지만 현지 시장 대응 및 생산단가가 저렴한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등 국내 생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2022년 수출도 증가하기 어려울 전망

태양광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수출액	23.6 (△17.8)	20.7 (△12.3)	15.0 (△27.5)	12.5 (△16.7)	13 (4)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태양광 수출액은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의 합
자료: 무역협회, 2021년 및 2022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3) 미래모빌리티

□ 2021년 전기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41.7% 증가한 55억 달러로 추정

- 2021년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자동차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반면 전기자동차 수출 금액은 42%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 중
- 2021년 전기자동차 수출액의 대부분인 80%를 유럽이 차지
 - ※ 대륙별 전기차 수출액 비중: 유럽(80%), 북미(15%), 오세아니아(3%), 아시아(1%)
- 많은 완성차 업체가 새로운 전기차를 선보이고 있어 '20년 전기차 모델 수는 전년 대비 43.4% 증가
 - ※ 전기차 모델 개수: ('19년) 85개 업체 189개 모델 → ('20년) 98개 업체 271개 모델

□ 2022년 전기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79억 달러 전망

- 20개국 이상이 향후 10~30년 이내로 내연기관 판매 중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2022년에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
-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출시 계획 및 신규 전기자동차 업체의 진입으로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는 확대되나 경쟁도 심화될 전망
- UAM, 수소전기차 등 미래모빌리티의 발전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며 2025년에 초기 시장을 형성 할 것으로 예상

전기자동차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수출액	4.2 (33.7)	10.9 (159.4)	23.5 (115.4)	39.0 (65.9)	55.3 (41.7)	79 (42.8)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전기자동차는 MTI 741400 기준

자료: 무역협회, 2021년 및 2022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4) 이동통신장비

□ `21년 이동통신장비 수출은 전년대비 9.8% 증가한 10.7억 달러로 추정

- `21년 11월까지 이동통신장비 수출은 전년대비 11.1% 증가한 9.7억 달러
-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23.7%), 베트남(20.1%), 일본(19.8%), 중국(홍콩 포함, 8.9%), 멕시코(3.5%) 순(`21.08월 기준)
-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과 체결한 무선통신 솔루션 공급계약(66억 달러 규모)으로 미국이 `25년까지 주요수출국이 될 전망
- 베트남의 중국 5G 장비 도입배제로 인한 수출량 증대, 멕시코 정부의 ICT 산업 집중투자로 통신장비를 포함한 중간재 수요증가

□ `22년 이동통신장비 수출은 `21년 대비 11.7% 증가한 12억 달러로 전망

- 5G 보급 및 특화망(사설망) 서비스 개발에 따라 `22년에는 성장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대중국제재 및 5G 표준변화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발생
- 미·중 가치사슬 분리에 따른 반화웨이 및 중립국가(인도 등) 틈새시장 발생, 삼성은 각국 통신사와 5G 통신장비 계약체결*
 - * (미국)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US셀룰러, (유럽) 보다폰, (일본) KDDI, (베트남) 비엠텔
- NSA 표준에서 SA 표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4G(LTE)-5G(NR) 장비 간 연계성이 축소되며 기존 3강(화웨이-에릭슨-노키아)의 선점효과 감소
 - * 기존 NSA(non-SA) 방식은 4G 통신(코어)망 의존, 기존 4G 장비를 납품한 회사를 다시 채택
- 글로벌 5G 특화망 공급*에 따라 융합서비스(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를 위한 지속적인 통신장비 수요 발생할 것으로 예상
 - * 우리나라는 `21년 6월 5G 특화망(사설망)용 주파수 공급(중대역: 100MHz, 고대역: 600MHz)

이동통신장비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수출액	20.9 (16.5)	12.6 (-39.6)	9.1 (-28.2)	9.8 (7.9)	10.7 (9.8)	12.0 (11.7)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1 및 2022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6) 제약·바이오

□ 2021년 의약품 수출은 전년 대비 약 21% 증가한 85억 달러

- 2021년 의약품 수출액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요 지속, 바이오시밀러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
-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지속과 함께 기 출시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 의약품 위탁생산(CMO)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액 증가세 지속
- 다만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대폭 둔화
- 2020년에 이어 2021년 2월까지 월별 수출액이 전년동월 대비 80~90% 수준의 큰 폭의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3월 수출증가율이 48%로 낮아지고, 4월 이후 증가율이 -0.3~20% 범위로 급격히 둔화되며 2021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84.9억 달러로 추정

□ 2022년 의약품 수출은 2021년 대비 약 6% 증가한 90억 달러 전망

-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CMO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나 바이오시밀러 경쟁심화로 큰 폭의 증가는 어려울 전망

의약품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수출액	31.7 (15.8)	37.2 (17.3)	41.0 (10.0)	70.5 (71.8)	84.9 (20.5)	90.0 (6.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MTI 226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6) 콘텐츠

□ 2021년 콘텐츠 수출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15억 달러로 추정

- 2021년 상반기 콘텐츠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6.8% 증가한 52.8억 달러를 기록,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된 것으로 추정
- 상반기 분야별 수출 비중은 게임 67.6%, 캐릭터 6.9%, 지식정보 6.6%, 음악 5.5% 순으로 게임이 콘텐츠 수출을 견인
 - *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는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수출위축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했으나 2019년 상반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게임은 신규 게임의 중국 수출은 어려우나* 기존 게임 수요 지속, 게임 수출 지역 다변화 등으로 수출 증가 예상
 - * 2017년 사드 배치로 중국의 한류금지령이 시작된 이후 국내 기업의 신규 게임은 중국에서 신규 판호(영업허가권) 받기가 어려워짐
- 음악은 온라인 콘서트 등 신시장 개척, 방송은 해외 OTT(Over The Top, 넷플릭스 등)의 콘텐츠 구매 증가로 수출 증가 예상

□ 2022년 콘텐츠 수출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122억 달러 전망

- 아시아를 중심으로 게임, 음악, 방송 등의 수출 호조 지속 전망
- 중국의 신규 게임 판호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은 수출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
- 중국의 콘텐츠산업 규제*, 일상으로의 복귀 등에 따른 콘텐츠 이용시간 감소 가능성 등은 위험 요인
 - * 청소년은 1주일에 3시간 게임 제한, 한국 연예인 팬클럽 규제 등

콘텐츠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수출액	88.1 (46.7)	96.2 (9.1)	101.9 (5.9)	108.3 (6.3)	115.0 (6.2)	122.4 (6.4)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에서 정의된 출판, 만화, 음악(공연 포함),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을 포함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년 및 2022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